

실기고사문제 <연극(연출)>

[면접 지정대본]

출 제 문 제

아래의 대본을 읽고 연출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장면을 무대화하시오
(조명 / 무대 / 음향 / 의상 / 소품 등)

[문제 출처]

- ▷ 작 가 : 배삼식
- ▷ 작 품 명 : 먼 데서 오는 여자

<문 제>

공원 햇볕 아래 푸른 잔디밭. 나무 한 그루, 그 그늘 아래 벤치 하나. 건너편 좀 떨어진 곳에 등받이가 없는 벤치 하나. 여자,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일렁이는 햇살을 올려다본다.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손가방을 두 손으로 그려주고 있다. 건너편 벤치 앞에 남자. 그 곁에 자전거 한 대. 자전거는 개조된 것으로, 앞 축에 앞바퀴 대신 환자용 휠체어가 연결되어 있다. 휠체어에는 양산이 꽂혀 있고 작은 라디오가 달려 있다. 휠체어는 비어 있다. 남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손수건으로 휠체어를 정성스레 닦는다.

남자 이제 내가 문을 열죠. 열면서 “여보, 나 왔어!” 그러면 그냥 짹 소리를 지르면서, 쪼르르 달려와요. 그래요, 꼭 강아지처럼, 폴짝 뛰어올라 내 품에 푹 안기는 거야-----. 아이구 참, 그렇게도 반가울까-----. 내가 중장비를 해서 나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떨 땐 사나흘, 일주일, 가끔은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거 왜 예전에, 내가 중동에도 갔었잖아요.

남자, 잠시 여자를 흘끗 본다. 여자, 여전히 평온한 미소만 짓고 있다.

남자 (여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도, 만나질 만에 점심 먹으러 와도 늘 한결같아. 폴짝 뛰어 내 품에 안겨서, 얼굴에다 막 뽀뽀를 하구-----. 그럴 땐 정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이) 그 사람은 나 기다리는 게 일이죠. 말은 안 해두 그 사람, 그러다가 속이 다 삭아 문드러져 버린 거라, 나 기다리다가----- 안 그래요?

출 제 문 제

여자 맞아. 마당이 있으면 좋지. 아무리 작은 마당이라두, 뭐든 심을 수 있으니까.

남자 댁에 마당이 있어요?

여자 그러게. 못됐죠. 누가 자꾸 뽑아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게-----.

여자, 두 손으로 둥그런 무언가를 감싸는 시늉을 한다.

남자 작약.

여자 작약! 난 빨간 꽃이 좋은데, 분홍 꽃 피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말 안 하니까 내가 모르는 줄 아나 본데, 다 알아요, 누군지-----.

남자 누가 그걸 캐 갔을까요?

여자 다 알고 있다구요-----. 근데, 댁에두 그-----.

남자 마당?

여자 응, 마당. 마당이 있어요?

남자 있죠. 작지만.

여자 그래요. 마당이 있어야 해요. 집에는. 아무리 작아도.

남자 우리 집사람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우리 미순 씨가-----.

여자 미순 씨?

남자 그래요, 우리 미순 씨-----.

여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남자는 웬지 초초하게 무언가를 기다린다. 여자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여자 (골똘히 생각하다가) 뭐----- 있었겠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두----- 아마 여럿 될걸요. 워낙 흔한 이름이니까-----.

남자 우리 미순 씨는 하나밖에 없죠.

여자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요. 화나셨나 봐. 내가 그렇게 말해서.

남자 아뇨, 아뇨. 전혀-----. 아무튼 우리 미순 씨도 집에는 꼭 마당이 있어야 한다고 나없는 새에, 집을 샀거든요. 우리 미순 씨가. 내가 사우디에서 보낸 돈 모아서. 내가 와 보니까, 용두동에다가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딱 사 났더라고. 아파트 편한데 아파트를 사지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는 어지러워 못 산다나, 무섭고. 저기 마포서 아파트 무너져 갖고 사람 죽고 다치고 한 거 못 봤냐고-----.

여자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남자 난 그때 월남에 있어서 못 봤지. 서울시장이 물러났다는 얘기만 나중에 들었어.

여자 아침에----- 봄날 아침에----- 꽃이-----.

출 제 문 제

여자, 묻는 듯한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 응? 아, 벚꽃?

여자 네, 벚꽃. 벚꽃이 막 필 때쯤----- 4월 8일 수요일.

남자 와, 그걸 다 기억해요?

여자 4월 5일 식목일이 일요일. 일요일날 내가 도망쳤거든요.

남자 도망쳐?

여자, 말해 놓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혼란스럽다.

남자 무슨 소리에요? 어디서? 누구한테서? (여자가 웬지 멍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집 마당에도 작약이 있어요.

여자 아, 그래요?

남자 우리 미순 씨가 심은 거죠. 한쪽에 조그맣게 남새밭도 있고요-----. 거기다 그 사람 철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랬어요.

여자 맞아요. 작약은 참 예뻐요. 탐스럽고.

남자 네-----. 참 탐스럽죠.

여자 작약을 좀 더 그러니까, 땅에다, 흙에다, 이렇게----- 세워서-----.

남자 심으신다구요?

여자 네, 그래요. 우리 그이가----- 곧 돌아오거든요.

사이.